

2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758.71 (-15.58)	814.25 (+2.13)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046 (-0.038)	1384.30 (-1.90)

## 반도체 끌고, 전자 밀고... 전자업계, 2분기 깜짝실적 예고

HBM 수요 급증에 반도체 호황 삼성·SK, '사상최대' 실적 전망 모바일 부품사, 폰 판매증가 수혜에 어킨 판매 늘어 가전도 '好好'

전자업계가 불황을 견뎌내고 봄날을 맞이하고 있다. 반도체의 호황은 물론 부진했던 모바일 부품부터 가전까지 회복하면서 깜짝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 반도체의 경우 인공지능(AI) 메모리로 급성장 중인 HBM 수요가 증가한 데다 시장 경쟁력이 뛰어난 범용 메모리 시장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떠받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등이 줄줄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앞서 업계 실적의 기준치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증권가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자업계들이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다. 모바일 부품사의 경우 LG이노텍과 삼성전기는 아이폰과 갤럭시 S24의 판매 증가로 수혜를 입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초격차 경쟁 반도체의 경우 SK하이닉스는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이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3E 납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SK하이닉스와 초격차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2분기 부분별 실적은

이달 말 확정 실적 발표에서 공개된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부문의 경우 매출 28조원, 영업이익 6조원대를 추정하고 있다.

지난 5일 삼성전자는 이미 올 2분기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10조4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시장 경쟁력이 뛰어난 범용 메모리 시장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메모리 사업도 적자 폭을 축소하고 있는 데다 메모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2분기 호실적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아직 HBM의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에 차세대 HBM3E 공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3분기 이후 실적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 수혜도 기대된다. 이날 로이터는 삼성전자의 HBM3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도하며 중국 시장에 쓰이는 저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H20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칩이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치열한 경쟁구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납부 사업을 따내면 글로벌 1위 반도체 탈환이 시간상 문제라는 분위기가

SK하이닉스의 호실적도 이미 예상된 수순이다. 올해 1분기 매출 12조 4296억원, 영업이익 2조8860억원 등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며 반도체



용산 대통령실 이어 국회서도 발견된 北 오물 풍선

북한에서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의 낙하물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 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도 2개가 발견됐다. 24일 오후 2시27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정입삼거리 일대에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유인물이 발견돼 군 관계자가 이를 회수하고 있다. (원안 사진)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오물풍선이 낙하하고 있다. /뉴스1

체 업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확실시시켰다.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HBM 수요가 AI 확산에 따라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뤘다. SK하이닉스는 4세대인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5세대 HBM인 HBM3E(8단)를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 중이다.

다만 업계서는 올 2분기에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밀릴 수 있다고 본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미국인도 반한 'K-뷰티' 아마존 행사 톱3 싹쓸이

아모레, 뷰티&퍼스널 부문 1~3위 달바 등 다수 브랜드 100위 내 포함

미국 대표 e커머스 아마존의 '프라임 데이' 행사에서 국내 뷰티 브랜드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K뷰티'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와 판매 증가 등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4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아마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뷰티&퍼스널 케어 부문 전체 순위 1~3위를 차지했다.

코스알엑스 대표 제품인 '어드벤스드 스네일 96 뮤신 파워 에센스'가 1위에 올랐고, 라네즈 대표 제품 '립 글로이 밤 베리'와 '립 슬리핑 마스크 베리'가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코스알엑스는 지난 2023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한 회사로, 2018년부터 아마존에서 '어드벤스드 스네일 96 뮤신 파워 에센스'와 같은 주요 제품을 내세워 북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업계에서는 코스알엑스의 영향력이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수출 다각화와 실적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분기부터 코스알엑스의 실적이 아모레퍼시픽 연결 기준 실적에 본격 반영될 것에 따른 분석이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해외 사업 매출은 336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매출의 36.9%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482억원을 기록한 중국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했으나, 서구권 사업 매출은 105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1.7%라는 고성장을 보였다.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자사 뷰티 디바이스를 약 1만 대 판매하며 인기를 과시했다. 에이피알이 올해 1분기 아마존에서 판매한 '부스터 H'를 비롯한 뷰티 제품 매출 규모는 지난 2023년 아마존 전체 매출의 약 4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은 올해 안에 아마존 서만 매출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이피알의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에서 내놓은 '제로포매프'도 올해 상반기에만 아마존에서 5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 결과, 아마존 내 스킨케어 화장품 부문에서 '토너&화장수'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밖에 구달, 달바, 조선미녀, 스킨1004 등 다수의 한국 브랜드들이 이번 아마존 행사에서 뷰티&퍼스널케어 카테고리 100위 안에 포함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K뷰티 인기를 뒷받침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유통·여행사 줄줄이 손절... 회복 불가 우려

### 티몬·위메프 사태 후폭풍

LF·다이소·아이파크몰 등 철수 여행업계 피해규모 1000억 관측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쿠퀀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 되자 대다수 유통·여행업계들은 빠른 손절을, 은행권은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처럼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자 소비자들은 더욱 반발하는 분위기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티몬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가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굵직한 유통업체들도 재빠르게 해당 플랫폼과 거래를 중단하고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해당 유통기업들의 상품들을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LF몰, 다이소몰, 아이파크몰도 해당 플랫폼 전문관에서 철수했다. 유통·식품업계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재까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여행업계는 지난주부터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알린 바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이미 판매한 상품도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할 것을 고객들에게 권고하고 나섰다.

여행업계의 피해규모는 약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여행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현

재 티몬 정산 지연 문제로 안내 문자를 전송드린다. 당사에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정산 지연에 따른 우려와 무관하게 정산에 문제가 없음을 믿고 고객님의 항공 이용에 지장 없도록 예약/발권 업무를 유지했다"며 "그러나 티몬 담당자로부터 정산 대금 무기한 지연에 관한 안내가 최종 확인돼 부득이 '항공 취소 혹은 재결제 안내'를 드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네이버페이, 구글, 페이코, SSG페이, 스마일콘, 엠트웰브 등 대형 제휴처들까지 일제히 해피머니 사용 및 전환을 중단했다.

쿠퀀이 운영하는 AK몰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판매를 철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4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오물풍선 실시간 감시해 조치... 심각성 인지"  
▲ 여야 학생인권법 논쟁... 이주호 "교권과 별개로 다뤄선 안 돼" /사진 뉴스1

▲ 윤, 체코 총리에 "원전 르네상스 시대, 손잡고 세계 진출"  
▲ 검찰, '故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



▲ 대통령실 "음주운전·성추행 등 공직기강 위반, 법·원칙 따라 처리"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연기 /사진 뉴스1